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년  
뉴스레터 5월호

## <차례>

**01**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소식  
4월 일본연구소  
워크샵·회의 소식

**02** 집담회 소식

**03** 연구소  
연구인력  
소개

**04** 연구소 신규  
소장도서 소개  
향후 연구소 일정

## 화요세미나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의 애칭) 소식

### 제 100회 특집 화요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들에게 올바른 일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계의 일본전문가와 함께 일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 온 '화요세미나'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제100회 화요세미나는 4월 21일 화요일에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한상일 선생님의 “일본, 어디로 가고 있나? : 국가진로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이 열렸으며 50여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100회를 넘어선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계속 된다.



- 101회 4월 28일  
주제: 일본의 저 탄소 사회 전략의 현황과 전망  
강연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 102회 5월 12일  
주제: 在 만주(滿州) 일본 문화의 거점 이동에 대하여-대련(大連)에서 신경(現長春)으로-  
강연자: 고바야시 히데오 (小林英夫)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 103회 5월 19일  
주제: 근대일본 "국체"관련의 시각화  
- 도쿄 양성관 "국체화"를 중심으로-  
강연자: 박삼현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과제기획 워크샵·회의

### 연구과제 기획 워크샵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일본연구소 HK사업 참여연구원과 함께 4월 11일에서 12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은 HK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항 보고 및 2009년 일본연구소 주요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1단계 연구 기획 회의

5월 7일 HK사업의 1단계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제1차 기획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HK연구진이 개인연구 주제 구상을 발표하고 공동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추후 기획회의를 통해 1단계 주제를 확정하고,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01

## 연구집담회 소식

일본연구소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일본연구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연구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역학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집담회 그 첫 번째 장이 4월 29일 국제대학원 GL-Room에서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박동성 박사와 서동주 박사의 발표로 열렸다. 제 2회 집담회는 5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에서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김효진 박사의 발표로 열렸다.

- 제 1회 집담회  
주제: 근대 일본의 제도변화와 지역공간의 재편성  
발표자: 박동성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주제: '재일'의 원(源) 풍경 :  
'강인한' 조선인과 '울분'의 디아스포라  
발표자: 서동주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제 2회 집담회  
주제: '귀여운 (かわいい)'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 논쟁을 통해 본 초국가 시대의 일본서브컬처  
발표자: 김효진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집담회 발표 요약문

**'재일'의 원(源) 풍경 :**  
**'강인한' 조선인과 '울분'의 디아스포라**  
서동주(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본 발표에서는 표상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나카노 시게하루의 문학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나카노의 문학텍스트의 표면에서 조선은 '민족독립'과 '천황제로부터의 배제'라는 정치적 담론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에 문맥화된 조선은 다민족제국 일본의 '변경', 즉 내부화된 타자라는 지정학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나카노의 조선관련 텍스트는 제국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급진적 저항과 더불어 제국이 산출한 식민주의적 상상력에 의존하는 착종성을 구조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일본의 제도변천과 지역공간의 재편성**  
박동성(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의 수립 이후 일본의 지방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제도 변화를 겪어왔다. 중앙에서 제정한 제도는 지방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시즈오카현 시모다시를 사례로 하여, 일본의 근대적 지방제도의 시행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방제도의 변천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과 결과로서 지역공간의 재편성 과정을 살펴본다.



**'귀여운'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와 초 국가 시대의 일본 서브컬처**  
김효진(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서브컬처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 내부, 그 중에서도 한정된 집단을 주된 수용자로 삼아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런 발전의 결과, 일본의 서브컬처는 인터넷의 발달 및 상호교류의 급속한 증가로 상징되는 초국가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경계(일본 내부의 경계 및 일본과 외부의 경계)를 넘기 시작했고, 수용자 층의 확대 및 타 문화로의 문화번역은 예상치 못했던 갈등과 모순을 발생시킨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동인문화의 영향권에서 탄생한, 세계 1,2차 대전을 배경으로 국가를 의인화한 만화 <헤타리아>의 상업화 및 미디어믹스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논쟁을 통해 '귀여운 역사'를 가능하게 한 일본의 동인문화와 일본 서브컬처 특유의 '메시지의 부재', 즉 무정치성의 정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HK 출범식을 맞이하여 HK연구진을 소개합니다.

### ● HK 일반연구원

| 교수명            | 소 속          |
|----------------|--------------|
| 한영혜<br>(연구책임자)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김현철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박철희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장인성            | 서울대 외교학과     |
| 권숙인            | 서울대 인류학과     |
| 정인섭            | 서울대 법학부      |
| 박진우            | 숙명여대 일본학과    |
| 박규태            | 한양대 일본문화언어학과 |
| 김순영            | 부산대 사회학과     |
| 이종구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 현재 HK교수 1명 임용 예정

\* HK교수·연구교수 추가 공모 예정(6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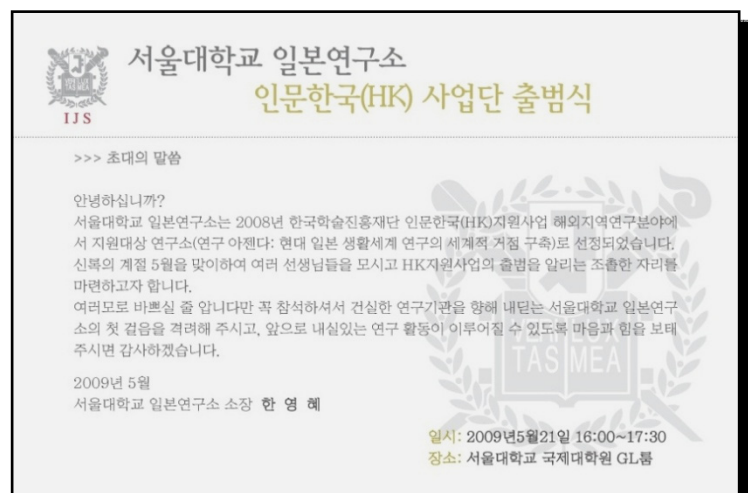
### ● HK연구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속)

| 교수명 | 박사학위(취득대학)              |
|-----|-------------------------|
| 김효진 | 인류학, Harvard University |
| 박동성 | 인류학, 도쿄대학(東京大学)         |
| 서동주 | 문학, 쓰쿠바대학(筑波大学)         |
| 조아라 | 지리학, 서울대학교              |

### ● HK연구보조원

| 성명      | 소 속              |
|---------|------------------|
| 김은혜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 김태진     | 서울대 외교학과 박사과정    |
| 지은숙     |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
| 김겨레     |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
| 김유훈     |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과정    |
| 권경인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양지영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최가영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이지혜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타카가와 진켄 |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인문한국(HK) 사업단 출범식이 열립니다.



## 2009년 일본연구소 신규 소장 도서 소개

- 木村 幹, 『朝鮮・韓国ナショナリズム「小国」意識』, ミネルヴァ書房, 2000
- 大塚初重・桜井清彦・鈴木公雄(編), 『日本古代遺跡事典』, 吉川弘文館, 1995
- 六国史索引編集部, 『六国史索引』, 吉川弘文館, 1994
- 児玉幸多(編), 『標準 日本史掛図』(全10冊), 吉川弘文館, 1981
- 上横手雅敬(編), 『中世の寺社と信仰』, 吉川弘文館, 2001
- 西川長夫, 『國境の越え方(國民國家論序説)』, 平凡社, 2001
- 原田敬一(著), 『國民軍の神話-兵士になるといふこと-』, 吉川弘文館, 2001
- 泉森 皎(著), 『大和古代遺跡案内』, 吉川弘文館, 2001
- 五味文彦・佐藤信の外, 『新 体系日本史』(全18巻・別巻2), 山川出版社, 2002
- 五味文彦・佐藤信の外, 『日本史リブレット』(全68巻), 山川出版社, 2002
- 都市史研究会(編), 『年報都市史研究』(全8巻), 山川出版社, 2001
- 大口勇次郎・五味文彦の外(編), 『日本史史話』(全3巻), 山川出版社, 1998
- 黒田日出男・メアリエリザベスの外(編),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2001
- 地方史研究協議会(編), 『(増補改訂版)歴史資料保存機関総覧』, 山川出版社, 1990
- 森浩一(企画), 『シリーズ, 日本を知る一過去から未來に向けて』(全14巻), 大巧社, 2000
- 高橋康夫・吉田伸之(編), 『日本都市史入門』(全3巻), 東京大学出版会, 1996
- 千田嘉博, 『織豊系城郭の形成』, 東京大学出版会, 2001
- 『写真・絵画集成 新聞の歴史』(全3巻), 日本図書センター, 1997
- 『図説 教科書の歴史』,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西川長夫, 『國境の越え方(國民國家論序説)』, 平凡社, 2001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국경은 정치적 국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국경이다. 저자는 일본과 일본문화 관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문명과 문화가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통합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보편적 혹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근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라면 그러한 “문화의 국경을 어떻게 넘어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黒田日出男・メアリエリザベスの外(編),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이 책은 지도, 그림지도를 보조자료가 아닌 역사사료의 주역의 하나로 위치시키고, 그에 담겨져 있는 의도, 작성의 정치사, 문화사적 배경을 읽어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9인의 연구자는 일견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일본지도의 배후에 있는 국토 이미지, 이국선의 내향으로부터의 새로운 국경의 인식과 새로운 측량기술에의 도전 등을 살피면서 지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치문화사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 일본연구소 향후 일정

### 연구집담회

- 제3차 연구집담회 5월 27일(수) 16:00~
  - 발표자: 조아라(HK연구교수), “일본 농촌관광의 이상과 현실”
  - 토론자: 최경은(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장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 제4차 연구집담회 6월 10일(수) 16:00~

### 일본학 연구지원사업 워크샵

- 제1부: 6월 4일(목)
  - 송지원,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한일 문화교류의 면면: 조선의 제사의례와 일본의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 서재길,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조선의 자기표상: 식민지 시기 조선방송협회의 ‘전일본’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 이경분,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음악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에서 활동한 일본음악가를 중심으로”
  - 전경수, “계몽과 현상의 문화인류학자 니시무라 신지: 일본 인류학사의 일면”
  - 장달중, “중국의 부상과 중·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 제2부: 6월 15일(월)
  - 정근식, “(공동연구) 일본 군사도시의 전쟁지역과 그 동아시아적 맥락”
  - 문명기, “일제하 조선총독부와 대만 총독부의 초기 재정정책 비교연구”

\*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2009년도 일본학연구지원사업 공모

일본연구소는 일본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본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건수: 단독연구에 한하여 10건 이내
- 연구비 규모: 건당 3백만원(전액 집필료)
- 신청기간: 2009년6월10일(오후6시까지 직접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년도 일본학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880-5099 / djseo9123@snu.ac.kr

### 2009년도 차세대 일본전문가 육성 사업 공모

#### 대학원생 일본현지자료조사 공모

신청기간: 2009년 5월 26일 (화) 17:00까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일본연구소 교수인솔 일본현지연수 공모

신청기간: 2009년 5월 26일 (화) 17:00까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7월 말 학술지 “일본비평” 창간호 발행